

## 상대적 외적 가치 지향과 삶의 만족 간 자기회귀교차지연 효과 검증

Testing the Auto-regressive Cross-lagged Effects Between  
Relative Extrinsic Value Orientation and Life-satisfaction

구재선<sup>1†</sup>  
Jaisun Koo<sup>1†</sup>

### Abstract

The relative extrinsic value orientation (REVO) means the relative importance to extrinsic values (e.g. wealth, fame and social approval) compared with intrinsic values (e.g. affiliation, self-acceptance and personal growth).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causal relation between REVO and life-satisfaction using the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For this purpose, 3rd, 5th, and 7th year data from the Korea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 middle school 1st grade panel was analyzed ( $N = 2,259$ ; 1,140 males and 1,119 femal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positive auto-regressive effects of REVO and life-satisfaction were significant. Secondly, REVO was found to have negative and cross-lagged effect on life-satisfaction. However, cross-lagged effect from life-satisfaction to REVO was not significant. Finally, no gender difference was found in this relationship. These results suggest that low life satisfaction does not cause the relative extrinsic value orientation, but high relative extrinsic value orientation may cause low life satisfaction.

**Key words:** Extrinsic Value, Intrinsic Value, Life-satisfaction,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

### 요약

상대적 외적 가치 지향은 내재적 가치(e.g. 사회적 관계, 자기수용 등)에 비해서 외재적 가치(e.g. 부유함, 사회적 인정 등)를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성이다. 본 연구는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적용하여 상대적 외적 가치 지향과 삶의 만족도의 인과적 관계를 확인하고, 이러한 관계에 성별 차이가 있는지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중1패널의 3차, 5차, 7차 년도 조사 자료( $N = 2,259$ ; 남자 1,140명, 여자 1,119명)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전 시점의 상대적 외적 가치 지향과 삶의 만족도는 이후 시점의 상대적 외적 가치 지향과 삶의 만족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주었다. 둘째, 이전 시점의 상대적 외적 가치 지향은 다음 시점의 삶의 만족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이전 시점의 삶의 만족은 이후 시점의 상대적 외적 가치 지향을 설명하지 못했다. 끝으로 이러한 관계는 남녀 집단 간에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삶에 대한 불만족이 내재적 가치보다 외재적 가치를 지향하게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 외적 가치 지향이 높을 때 삶의 만족도가 낮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외재적 가치, 내재적 가치, 삶의 만족,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sup>1†</sup> (교신저자) 구재선: 중앙대학교 다빈치교양대학 조교수 / E-mail: susanna9@hanmail.net / TEL: 02-820-5956

## 1. 서론

가치 지향(value orientation)은 특정한 행동 양식이나 상태를 다른 것보다 더 선호하는 신념이다(Rokeach, 1973). 이러한 가치 지향은 자신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정의하는 원칙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Schwartz 1992), 구체적인 목표 설정과 행동 및 그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정서를 결정한다는 점에서(Chae, 2017; Locke, 2002; Rohan, 2000; Torelli & Kaikati, 2009) 인간의 삶에 포괄적인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Kasser와 Ryan(1996)은 가치를 그 내용에 따라 내재적 가치(intrinsic value)와 외재적 가치(extrinsic value)로 구분하였다. 내재적 가치는 인간의 고유한 자아실현 및 성장 경향성과 일치하는 가치로, 자기 수용(self-acceptance), 친밀감(affiliation), 개인적 성장(personal growth)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러한 가치들은 그 자체로 만족스러운 행동과 경험을 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개인의 성장과 발달에 기여한다. 반면에 외재적 가치는 경제적 성공(financial success), 명성(fame), 타인의 인정(social recognition) 등과 같은 외적인 보상이나 칭찬을 추구하는 가치이다. 자신이 칭찬이나 보상을 받을 가치가 있는지는 타인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외재적 가치는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작용할 뿐 그 자체로 만족을 제공하지는 못한다. 이러한 내-외재적 가치의 2요인 구조는 한국을 포함한 여러 문화권에서 보편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Grouzet et al., 2005).

내-외재적 가치지향 중에서 내재적 가치 지향은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적 욕구(basic psychological need)를 충족시켜 준다는 점에서 외재적 가치 지향보다 더 적응적인 것으로 알려졌다(Deci, & Ryan, 2000; Kasser, 2002; Ryan & Deci, 2002). 자기결정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에 따르면, 인간은 선천적으로 자율성(autonomy), 유능성(competence), 관계성(relatedness)의 기본 심리적 욕구를 가지고 태어난다. 따라서 스스로 행동을 선택하고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자신이 효율적이라고 느낄 때 만족감과 성장을 경험하게 된다. 내재적 가치를 지향하는 것은 이러한 기본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켜주지만, 외재적

가치 지향은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욕구 충족을 저해하는 행동에 개입하게끔 한다. 따라서 내재적 가치보다 외재적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은 안녕감(well-being)이 낮고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 자기결정이론의 설명이다.

이러한 이유로 학자들은 내재적 가치와 외재적 가치들 간에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내재적 가치를 지향할지라도 외재적 가치가 내재적 가치와 균형을 잃을 정도로 강하다면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Kasser & Ryan, 1993; 1996). 상대적 외적 가치 지향(relative extrinsic value orientation: REVO)은 이러한 내-외재적 가치에 부여하는 상대적인 중요성을 반영한 개념으로, 개인이 내재적 가치에 비해서 외재적 가치를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을 의미한다(Sheldon, Gunz, Nichols, & Ferguson, 2010).

상대적 외적 가치 지향은 낮은 삶의 만족도 및 안녕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생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Kasser와 Ryan(1993)의 연구에서 경제적 성공을 다른 가치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낮은 자아실현과 활력 및 높은 우울과 불안 수준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외재적 가치에 이미지(image)와 명성(fame)을 추가하고 성인을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었다(Kasser & Ryan, 1996). 종단연구들에서도 마찬가지로 18-30세 동안 개인의 가치 체계 내에서 경제적 성공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의 변화는 심리적 건강의 변화와 부적인 관련이 있었고(Kasser et al., 2014), 대학교 신입생 시기에 경제적 성공이라는 목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19년 후 30대 후반의 나이가 되었을 때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와 가정, 친구, 직업에 만족하는 정도가 더 낮았다(Nickerson, Schwarz, Diener, & Kahneman, 2003).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상대적 외적 가치 지향은 1년 후 낮은 행복을 예측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Koo & Suh, 2015).

그러나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모두 암묵적 혹은 명시적으로 상대적 외적 가치 지향을 독립변인으로 간주하여서 반대 방향으로의 영향력을 고려하지 못했다. 높은 상대적 외재적 가치 지향이 심리적 안녕과

만족을 저하시킬 수 있지만, 반대로 삶에 만족하지 못할 때 상대적 외적 가치 지향이 증가할 수도 있는 것이다. Solberg, Diener, 그리고 Robinson(2004)는 왜 물질주의자들이 만족 수준이 낮은지를 설명하는 몇 가지 가설을 검증하면서 삶에 불만족하는 사람이 물질주의자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불행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서 주의를 멀리하기 위해서 혹은 물질이 분명한 성공의 신호이기 때문에 물질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검증하는 두 개의 연구 결과는 불일치했다. 한 연구에서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글을 작성 한 후 경제적 목표와 성취 목표가 증가했으나, 동일한 절차를 사용한 다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Solberg 등(2004)은 불행한 사람이 물질을 추구하는가에 대한 결론을 유보하였다.

그러나 심리적으로 안녕하지 못한 상태가 상대적 외적 가치 지향을 증가시킬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선행연구에서 외재적 가치에 부여하는 상대적인 중요성은 불안이나 위협의 상황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여 불안이 유발되었을 때 더 높은 수준의 물질적인 욕구를 보였고(Kasser & Sheldon, 2000), 경제적 위협이나 대인관계적 위협의 상황에서도 외재적 목표가 증가하고 내재적 목표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heldon & Kasser, 2008).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심리 상태가 상대적 외적 가치 지향을 증가시킨 것이다.

Sheldon과 Kasser(2008)는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먼저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위협의 상황은 안전의 욕구를 침해한다. 따라서 사람들은 자아실현을 포기하는 대신에 보다 안전감을 제공하는 외재적 가치를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진화론적인 관점에서도 돈, 지위, 외모 등과 같은 외재적 목표는 과거 진화의 역사에서 생존을 돕는 일시적인 수단의 기능을 하였다. 따라서 현대인들도 생존과 안전감이 위협될 때에는 외재적 가치를 추구하도록 진화하였다는 것이 Sheldon과 Kasser(2008)의 설명이다.

이러한 설명은 삶에 대한 불만족이 상대적 외적 가치 지향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자기결정이론의 주장과도 일치한다. Kasser(2002)는 자기결정이론을 개관

하면서 심리적 안녕감이 낮은 사람들(예를 들면, 자기 존중감과 만족감이 낮고, 타인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없는 사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부모가 지나치게 처벌적이고 통제적인 사람 등)은 최소한의 만족감과 자기가치감을 얻기 위한 보상 전략으로 외재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요컨대 심리적으로 안녕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고양(self-enhancement)을 통해서 심리적 안전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재적 가치보다는 외재적 가치를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듯 상대적 외적 가치 지향이 삶의 만족을 저하시킬 수 있지만 반대로 삶에 대한 불만족이 상대적 외적 가치 지향을 유발할 수도 있기에, 본 연구는 대규모 장기 종단 자료를 사용하여 상대적 외적 가치 지향과 삶의 만족 간의 인과적 관계의 방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남성은 여성보다 경제적 성공과 같은 외재적 가치를 더 강조하고 여성은 남성보다 내재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며(Kasser & Ryan, 1993; 1996), 물질적 가치와 낮은 안녕감의 관계는 남성보다 여성 집단에서 더 강한 것으로 보고되었다(Dittmar, Bond, Hurst, & Kasser, 2014). 이에 본 연구는 상대적 외적 가치 지향과 삶의 만족 간의 인과적 관계에 성별 차이가 있는지 추가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본 연구는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 지향과 심리적 적응의 관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대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중1패널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자료는 2010년 당시 전국의 중학교 1학년 재학생을 표본 추출하여 2016년까지 1년 주기로 추적 조사한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치 지향과 삶의 만족도가 모두 측정된 3차, 5차, 7차년도 자료를 분석하였다. 중1패널 중에서 3차 조사에 참가한 인원은 총 2,259명(남자 1,140명, 여자 1,119명)이었고, 그 중에서 5차와 7차

년도 조사에 참여한 인원은 각각 2,080명(남자 1,061명, 여자 1,019명)과 1,872명(남자 924명, 여자 948명)이었다.

## 2.2. 측정 도구

**삶의 만족도.** KCYPS 자료 중에서 김신영 등(2006)이 개발한 삶의 만족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나는 사는 게 즐겁다’, ‘나는 걱정거리가 별로 없다’, ‘나는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의 3문항으로 구성된 4점 리커트 척도이다(1: 매우 그렇다, 4: 전혀 그렇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해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역산 점수를 사용했으며,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3차, 5차, 7차 조사 자료에서 삶의 만족도 3문항의 신뢰도 계수(Cronbach  $\alpha$ )는 각각 .815, .782, .790으로 양호하였다.

**가치 지향.** 미국 교육종단연구(NELS: U.S. Department of Education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2002)의 문항을 청소년에게 맞게 수정, 보완한 삶의 목표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각 문항이 중요한 정도를 묻는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Jung과 Lee(2017)는 그 중에서 12문항을 Kasser와 Ryan(1996)에 따라 외적성취 목표(부유함과 물질적 소유, 타인의 인정, 좋은 대학 진학), 관계지향 목표(행복한 가정, 가족의 친밀감, 좋은 부모 되기), 내적 성장 목표(창의성, 자기만족, 도전과 모험), 사회기여 목표(타인 돕기, 환경 보호,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의 4개 범주로 재구성한 바 있다. 이러한 가치 지향들은 Kasser와 Ryan(1996)의 요인분석에서 2요인 구조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경제적 성공(financial success), 사회적 인정(social cognition), 외모(appealing appearance)는 외재적 가치 요인에 부하되었고, 대인관계(affiliation, relatedness), 자기수용/성장(self-acceptance, growth) 공동체 의식/이타성(community feeling/helpfulness), 신체적 건강(physical fitness, health)은 내재적 가치 요인에 부하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적 성취 목표에 해당하는 3문항을 ‘외재적 가치’의 지표로 사용하였다. ‘내재적 가치’ 지표의 경우, 본 연구의 대상인 청소년들에게는 가족관계 뿐 아니라 친구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계지향 목표, 내적 성장 목표, 사회 기여 목표를 측정하는 9문항에 우정에 대한 1문항(‘좋은 친구들과 우정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을 추가하여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1: 매우 그렇다, 4: 전혀 그렇지 않다)로 측정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해석상의 편의를 위해서 역산 점수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항목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재적 가치 10문항의 신뢰도 계수(Cronbach  $\alpha$ )는 3차 조사  $\alpha = .867$ , 5차 조사  $\alpha = .828$ , 7차 조사  $\alpha = .816$ 으로 양호하였다. 외재적 가치 3문항의 신뢰도 계수의 경우 3차  $\alpha = .486$ , 5차  $\alpha = .495$ , 7차  $\alpha = .407$ 로 내적 일치도가 다소 낮았으나 문항수가 작음을 고려하여 그대로 사용하였다. 상대적 외적 가치 지향 점수(REVO: relative extrinsic value orientation)는 선행연구자들(Sheldon & Kasser, 2008; Sheldon et al., 2010)에 따라 외재적 가치 지향 문항의 평균에서 내재적 가치 지향 문항의 평균 점수를 뺀 차이값으로 산출하였다.

## 2.3. 분석 방법

먼저 자료의 전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 통계치를 검토하였다. 그 후에 상대적 외적 가치 지향과 삶의 만족 간의 종단적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 분석(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ARCL)을 실시하였다. 또한 다집단 분석(multiple group analysis)을 실시하여 이러한 종단적 관계에 성별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은 시간적 변화에 따라 같은 변수들(within variables)과 다른 변수들(between variables) 간의 관계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한 시점의 값(t)이 이전 시점의 값(t-1)에 의해서 설명된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Kim, Kim, & Hong, 2009). 본 연구에서는 2년 단위로 측정된 상대적 외적 가치 지향과 삶의 만족 간의 상호지연효과(cross-lagged effect)를 검토하기 위해서 Figure 1과 같은 연구 모형을 설정하고, 변인들 간의 시간적 변화에 따른 관계를 검토하였다.

모든 분석에는 SPSS 25과 Amos 25를 사용했으며, 결측치는 완전정보 최대우도법(Full-information Maxim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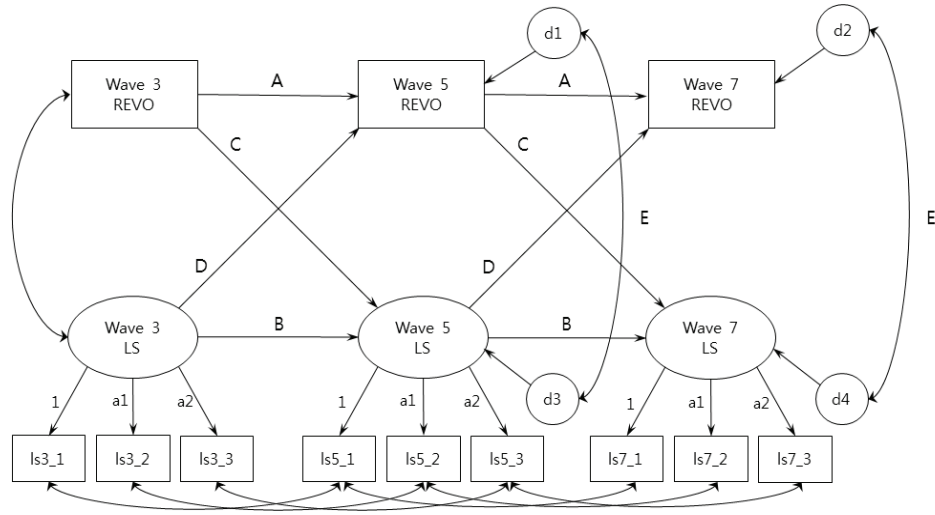


Fig. 1.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of relative extrinsic value orientation and life-satisfaction.  
 Note. REVO: relative extrinsic value orientation, LS: life-satisfaction.

Likelihood: FIML)으로 처리하였다. 모형 적합도 지수로는  $\chi^2$ 과 함께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cher-Lewins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검토하였다.  $\chi^2$ 은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여 표본이 클 경우 적합한 모형을 기각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CFI, TLI, RMSEA는 보다 바람직한 지수로 추천된다(Hong, 2000). CFI와 TLI는 대략 .90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로 간주되고, RMSEA는 .05이하면 좋은 적합도(close fit), .08이하면 괜찮은 적합도(reasonable fit)로 여겨진다(Browne & Cudeck, 1993; Hu & Bentler, 1998).

### 3. 연구 결과

#### 3.1. 기술통계치

각 측정시점 별 상대적 외적 가치 지향과 삶의 만족의 상관계수와 기술통계치를 Table 1에 제시했다. 먼저 평균을 검토했을 때, 모든 측정 시점에서 상대적 외적 가치 지향의 평균은 0보다 작아서 외재적 가치보다 내재적 가치 지향의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관계의 경우, 상대적 외적 가치 지향은 삶의 만족과 유의한 부적 관계를 보였다. 끝으로 왜도와 첨도를 검토했을 때, 각각의 절대값이 2와 7을 넘지

Table 1. Correlation matrix and descriptive statistics

	wave3 REVO	wave5 REVO	wave7 REVO	wave3 LS	wave5 LS	wave7 LS
wave3 REVO	1.00					
wave5 REVO	.346**	1.00				
wave7 REVO	.251**	.371**	1.00			
wave3 LS	-.071**	-.062**	-.054*	1.00		
wave5 LS	-.098**	-.177**	-.077**	.422**	1.00	
wave7 LS	-.080**	-.094**	-.190**	.323**	.430**	1.00
Mean	-.46	-.59	-.56	2.85	2.80	2.84
SD	.56	.58	.57	.68	.59	.58
Skewness	-.58	-.44	-.45	-.03	.09	-.05
Kurtosis	.61	.50	.74	-.19	.15	.34

Note. REVO: Relative extrinsic value orientation, LS: life satisfaction  
 \*\*  $p < 0.01$ , \*  $p < 0.05$

않아서 Kline(2016)의 기준에 근거할 때 자료가 최대 우도추정법(the method of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사용하기 위한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3.2.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검증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시간에 따른 측정 동일성, 경로 동일성, 오차 공분산의 동일성이 성립되어야 한다(Kim et al., 2009). 이에 다음과 같은 위계적으로 내재된 7개의 경쟁모형을 설정하여 동일성을 검증했다. 아래 모형들에서 모형2는 측정 동일성을 검증하기 위한 모형이고, 모형3에서 모형6은 경로 동일성, 모형7은 오차 공분산의 동일성을 검증하는 모형이다.

- 모형1: Figure1에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은 모형
- 모형2: 삶의 만족도 측정변인에 대한 요인적재치 (a1, a2)를 각 시점별로 동일하게 제약한 모형
- 모형3: 모형2에 추가로 상대적 외적가치 지향 자기회귀계수(A)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 모형4: 모형3에 추가로 삶의 만족도 자기회귀계수(B)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 모형5: 모형4에 추가로 상대적 외적 가치 지향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교차회귀계수(C)를 동일하게 제약한 모형
- 모형6: 모형5에 추가로 삶의 만족도의 상대적 외적 가치 지향에 대한 교차회귀계수(D)를 동일하게 제약한 모형

모형7: 모형6에 추가로 상대적 외적 가치 지향과 삶의 만족도 간 오차 공분산(E)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이러한 모형들 중에서 최적의 모형을 찾기 위해서 모형1에서 모형8까지 순차적인 비교를 실시하였다. 모형비교에는 전통적으로 카이제곱차이검증( $\Delta\chi^2$  test)이 많이 사용되었지만, 카이제곱검증과 마찬가지로 카이제곱차이검증 또한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다는 비판이 있기에 CFI 변화량을 고려하였다. CFI가 .01보다 적게 감소한 경우 모형들 간에 적합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Cheung & Rensvold, 2002), 따라서 동일화제약을 추가하여 간명성이 높아진 후속 모형이 채택된다.

7개 경쟁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Table2에 제시하였다. 먼저 기저모형(모형1)의 적합도를 검토했을 때,  $\chi^2 = 198.354$ ,  $p < .001$ 로  $\chi^2$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나, CFI = .982, TLI = .964, RMSEA = .042로 다른 적합도 지수들은 모두 기준을 충족하였다. 이에 삶의 만족도 측정변인에 대한 요인적재치를 시점별로 동일하게 제약한 모형2와 모형1의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비록 표본의 크기에 민감한 카이제곱 차이값은  $\Delta\chi^2_{(4)} = 15.575$ ,  $p < .01$ 로 유의했으나, CFI 차이값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Delta CFI < .01$ ). 따라서 측정 동일성이 충족되었으며, 삶의 만족도 문항들은 시간적 흐름과 무관하게 응답자들에게 동일하게 해석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측정동일성이 지지되었기에 다음으로 경로 동일성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상대적 외적 가치 지향 자기

Table 2. Goodness-of-fit indices of the hierarchical models

	$\chi^2$	df	$\Delta\chi^2$	CFI	$\Delta CFI$	TLI	RMSEA	90% CI
Model 1	198.354***	40		.982		.964	.042	[.036, .048]
Model 2	213.929***	44	15.575**	.980	-.002	.965	.041	[.036, .047]
Model 3	213.930***	45	.000	.980	.000	.966	.041	[.035, .046]
Model 4	221.276***	46	7.346**	.980	.000	.966	.041	[.036, .047]
Model 5	224.120***	47	2.845	.979	-.001	.966	.041	[.036, .046]
Model 6	225.093***	48	.973	.979	.000	.967	.040	[.035, .046]
Model 7	226.879***	49	1.785	.979	.000	.967	.040	[.035, .045]

Note. \*\*\*  $p < .001$ ,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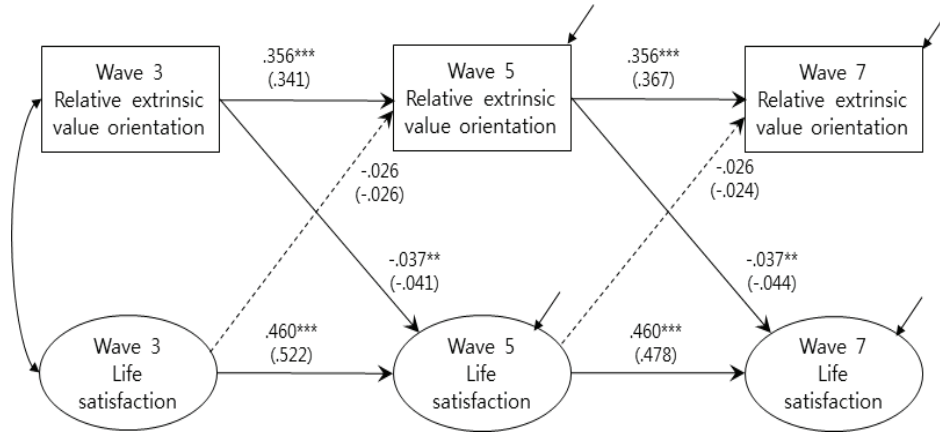


Fig. 2. Parameter estimates representing the cross-time relationship in the final model (Model 7).  
(Note. Standardized values are given in parentheses, \*\*\*  $p < .001$ , \*\*  $p < .01$ .)

회귀 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추가한 모형3은 이전 모형(모형2)과 적합도의 차이가 없었고( $\Delta\chi^2_{(1)} = .000$ ,  $\Delta CFI = .000$ ), 삶의 만족 자기회귀 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추가한 모형4 또한 이전 모형과 CFI가 동일하였다. 또한 상대적 외적가치 지향에서 삶의 만족으로의 교차회귀계수 및 삶의 만족에서 상대적 외적 가치 지향으로의 교차회귀계수의 시점간 동일성 제약을 추가한 모형들(모형5와 모형6)도 이전 모형과의 카이제곱 차이값이 유의하지 않았고, CFI 차이도  $\Delta CFI = -.001$ 과  $\Delta CFI = .000$ 으로 기준을 충족하였다. 따라서 경로의 동일성이 지지되었으며, 자기회귀 효과와 교차회귀 효과가 시간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모두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끝으로 오차공분산의 시점 간 동일화 제약을 추가한 모형7의 경우도 이전 모형(모형6)과 적합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Delta\chi^2_{(1)} = 1.785$ ,  $n.s.$ ,  $\Delta CFI = .000$ ), 오차공분산의 동일성 가정이 충족되었다. 이에 모형7을 최종 모형으로 선정하였다.

최종 모형(모형7)에 대한 구조계수 추정치를 검토한 결과, Figure2에 제시한 바와 같이 두 개의 자기회귀 계수(A, B) 및 상대적 외적 가치 지향에서 삶의 만족으로의 교차회귀계수(C)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이전 시점의 상대적 외적 가치 지향은 이후 시점의 상대적 외적 가치 지향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B = .356$ ,  $p < .001$ ), 이전 시점의 삶의 만족은 이후 시점의 삶의 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B = .460$ ,  $p < .001$ ). 또한 이전 시점의 상대적 외적 가치 지향은 이후 시점의 삶의 만족에 유의한 부적인 영향

을 주었다( $B = -.037$ ,  $p < .01$ ). 그러나 이전 시점의 삶의 만족에서 이후 시점의 상대적 외적 가치 지향으로의 교차지연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상대적 외적 가치 지향은 이후 삶의 만족을 저해할 수 있으나, 낮은 삶의 만족도가 상대적 외적 가치 지향을 유발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3.3. 성별 다집단 분석

다음으로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여 최종 모형(모형7)에 성별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집단 간 등가제약(cross-group equality constraints)을 추가한 7개의 경쟁모형을 설정하였다. 모형A는 성별 동일화 제약을 가하지 않고 두 집단을 동시에 분석하는 모형이고, 모형B에서 모형G는 요인 부하량( $a_1$ ,  $a_2$ ), 자기회귀계수(A와 B), 교차회귀계수(C와 D) 및 오차 공분산(E)에 성별 동일화 제약을 차례로 추가한 모형이다.

- 모형A: 성별 집단 간 동일화 제약을 가하지 않은 기저 모형
- 모형B: 삶의 만족도 측정변인의 요인 부하량( $a_1$ ,  $a_2$ )을 성별 집단 간에 동일하게 제약한 모형
- 모형C: 상대적 외적 가치 지향 자기회귀계수(A)의 성별 집단 간 동일화 제약을 추가한 모형
- 모형D: 삶의 만족 자기회귀계수(B)의 성별 집단 간 동일화 제약을 추가한 모형

Table 3. Goodness-of-fit indices in multiple group analysis by gender

	$\chi^2$	df	$\Delta\chi^2$	CFI	$\Delta$ CFI	TLI	RMSEA	90% CI
Model A	277.496***	98		.979		.967	.028	[.025, .032]
Model B	280.576***	100	3.079	.979	.000	.967	.028	[.024, .032]
Model C	280.777***	101	.201	.979	.000	.967	.028	[.024, .032]
Model D	286.053***	102	5.276*	.978	-.001	.967	.028	[.024, .032]
Model E	286.618***	103	.565	.978	.000	.967	.028	[.024, .032]
Model F	287.663***	104	1.045	.978	.000	.968	.028	[.024, .032]
Model G	291.951***	105	4.289*	.978	.000	.967	.028	[.024, .032]

Note. \*\*\*  $p < .001$ , \*  $p < .05$

Table 4. Parameter estimates in multi-group analysis by gender

	Male			Female		
	B	SE	$\beta$	B	SE	$\beta$
Wave3 REVO → Wave5 REVO	.359***	.015	.329	.359***	.015	.368
Wave5 REVO → Wave7 REVO	.359***	.015	.372	.359***	.015	.363
Wave3 LS → Wave5 LS	.459***	.015	.513	.459***	.015	.534
Wave5 LS → Wave7 LS	.459***	.015	.493	.459***	.015	.457
Wave3 REVO → Wave5 LS	-.035**	.014	-.037	-.035**	.014	-.042
Wave5 REVO → Wave7 LS	-.035**	.014	-.043	-.035**	.014	-.041
Wave3 LS → Wave5 REVO	-.020	.017	-.020	-.020	.017	-.020
Wave3 LS → Wave7 REVO	-.020	.017	-.019	-.020	.017	-.018

Note. REVO: Relative extrinsic value orientation, LS: life satisfaction  
 \*\*\*  $p < .001$ , \*\*  $p < .01$

모형E: 상대적 외적 가치 지향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교차회귀계수(C)에 성별 동일화 제약을 추가한 모형

모형F: 삶의 만족도의 상대적 외적 가치 지향에 대한 교차회귀계수(D)에 성별 동일화 제약을 추가한 모형

모형G: 상대적 외적 가치 지향과 삶의 만족도 간 오차 공분산(E)에 성별 동일화 제약을 추가한 모형

이러한 7개 경쟁모형들의 적합도 지수를 검토했을 때, Table3과 같이 모든 모형의 적합도 지수들이 수용 가능한 수준이었다. 또한 모형A에서 모형G까지 적합도를 순차적으로 비교하였을 때에도 모든 모형의 CFI 지수가 이전 모형보다 .01 미만으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가장 간명한 모형인 모형G가 최종모형으로 선정되었으며, 남성과 여성 집단 간에는 상대적 외적 가치

지향과 삶의 만족도의 요인계수, 자기회귀 계수, 교차지연 계수, 및 오차 공분산이 모두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종 모델에 대한 남녀 집단의 계수 추정치들은 Table4에 제시되어 있다. 남자와 여자 집단 모두 상대적 외적 가치 지향과 삶의 만족의 자기회귀 계수가 유의했으며(상대적 외적 가치 지향:  $B = .359, p < .001$ , 삶의 만족:  $B = .459, p < .001$ ), 이전 시점의 상대적 외적 가치 지향에서 이후 시점의 삶의 만족으로의 교차지연계수 또한 유의하였다( $B = -.035, p < .01$ ). 그러나 이전 시점의 삶의 만족에서 이후 시점의 상대적 외적 가치 지향으로의 교차지연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B = -.020, n.s.$ ). 따라서 남녀 집단 모두 낮은 삶의 만족이 상대적 외적 가치 지향을 유발하기 보다는 상대적 외적 가치 지향이 삶에 대한 불만족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4. 논의

상대적 외적 가치 지향은 물질이나 타인의 인정과 같은 외재적 가치를 대인관계, 자기수용 등의 내재적 가치보다 더 강조하는 경향이다. 이러한 상대적 외적 가치 지향은 낮은 심리적 안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Kasser, 2002; Ryan & Deci, 2002). 이에 본 연구는 대규모 장기 종단 자료를 분석하여 상대적 외적 가치 지향과 삶의 만족 간의 인과적 방향성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상대적 외적 가치 지향에서 삶의 만족으로의 교차 지연 효과(cross-lagged effect)가 유의하였다. 따라서 이전 시점의 상대적 외적 가치 지향은 이전 시점의 삶의 만족을 통제했을 때에도 2년 후 낮은 삶의 만족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상대적 외적 가치 지향이 높은 사람이 이후 삶에서 행복과 만족 수준이 낮다는 국내외 여러 선행 종단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Kasser et al., 2014; Koo & Suh, 2015; Nickerson et al., 2003; Sheldon, 2005). 따라서 외재적 가치를 내재적 가치보다 강조하는 것은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이라는 인간의 선천적인 기본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심리적 안녕감을 저하시킨다는 자기결정이론(Deci & Ryan, 2000; Kasser, 2002; Ryan & Deci, 2002)의 주장은 본 연구에서도 타당한 것으로 지지되었다.

내재적 가치보다 외재적 가치를 강조할 때 삶의 만족이 저하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현재 한국 사회에 만연된 외재적 가치 추구 현상에 대해서 사회적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 청소년들은 서구 문화권의 청소년들에 비해서 외재적 가치를 더 강조하고 내재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향이 더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Koo & Suh, 2015). 이것은 한국의 청소년들이 외재적 가치가 주는 보상을 과대추정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Sheldon 등(2010)에 따르면 상대적 외적 가치 지향이 높은 사람은 외재적 목표가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경험을 제공한다고 생각하고 외재적 목표를 달성했을 때 행복이 유발된다고 예측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Sheldon 등(2010)의 연구에서 실제 안녕감의 향상에 기여한 것은 외재적 목표가 아니라 내재적 목표의 달성이었다. 대학 졸업 후 1

년간의 종단적 변화를 검토한 다른 연구(Niemiec, Ryan, & Deci, 2009)에서도 내재적 목표의 달성은 기본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안녕감을 향상시켰으나, 외재적 목표의 달성은 안녕감의 긍정적 지표들(긍정적 정서, 삶의 만족, 자기존중감)의 변화와 관련이 없었으며 오히려 안녕감의 부정적 지표들(부정적 정서, 불안, 신체적 증상)을 증가시켰다. 따라서 한국의 청소년들이 자신이 추구하는 외재적 목표를 달성한다고 해도 행복과 만족감이 증가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반면에 본 연구에서 낮은 상대적 외적 가치 지향은 남녀 집단 모두 삶의 만족의 증가로 이어졌다. 따라서 내-외재적 가치 지향이 자신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인식하고 내재적 목표를 외재적 목표보다 강조하는 사회적 풍토가 조성된다면 한국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가 보다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 연구에서 상대적 외적 가치 지향에 대한 삶의 만족의 교차지연효과는 남녀 집단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삶에 대한 불만족이 상대적 외적 가치 지향을 증가시키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안녕하지 못한 심리 상태가 내재적 가치보다 외재적 가치를 지향하게끔 만든다는 선행연구자들(Kasser & Sheldon, 2000; Sheldon & Kasser, 2008)의 주장과 불일치한다. 이것은 본 연구가 인지적인 삶의 만족을 안녕감의 지표로 사용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Diener(1984)에 따르면,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은 인지적 요소(삶의 만족도)와 정서적 요소(긍정적 및 부정적 정서 경험)로 구성된다. 선행연구들에서 상대적 외적 가치 지향은 안전의 욕구가 침해되는 위협의 상황에서 증가되었기에, 삶의 불만족과 같은 인지적 요소보다는 불안과 같은 정서적 요소들이 상대적 외적 가치 지향의 증가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주관적 안녕감의 정서적 요소를 포함한 종단자료의 분석이나 실험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확인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삶의 만족이 이후 시점의 상대적 외적 가치 지향을 설명하지 못한 또 다른 이유는 본 연구가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고 측정된 외재적 가치들이 안전의 욕구 침해와 상대적으로 관련이 적은 가치들이기 때문일 수 있다. 물질적 풍요는 청소년보다 성인기 이후에 더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다. 또한 한국 사

회에서 청소년들에게 좋은 대학으로의 진학이나 사회적 인정은 욕구 위계에서 낮은 단계에 해당하는 안전의 욕구보다는 존중이나 사회적 욕구와 같은 상위 욕구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여러 연령과 문화 집단을 대상으로 내-외재적 가치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렇듯 본 연구는 삶의 만족 이외에 정서 경험과 같은 안녕감의 다른 측면들을 포함하지 못하고 청소년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그 밖에 외재적 가치를 측정하는 3문항 간의 내적일치도가 낮아서 신뢰도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 또한 본 연구가 갖는 한계점이다. 본 연구에서 외재적 가치 문항들 간의 관련성을 검토했을 때 물질적 풍요와 사회적 인정간의 상관계수가 상대적으로 낮았다(3차 조사  $r = .202, p < .01$ , 5차 조사  $r = .221, p < .01$ , 3차 조사  $r = .157, p < .01$ ). 또한 좋은 대학 진학과 타인의 인정의 관계는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시기에 측정된 3차( $r = .326, p < .01$ )와 5차 조사( $r = .288, p < .01$ )에서보다 대학교 1학년 시기에 측정된 7차 조사( $r = .176, p < .01$ )에서 더 낮았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할 때, 후속연구에서는 외재적 가치 내용들의 구조적 관계가 연령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본 연구의 제한점은 기존의 패널자료를 사용하였기에 비롯되었다. 대규모 장기 종단 자료는 개인이 구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최근 국내 여러 기관들에서 구축된 다양한 패널자료들이 공개되고 있으나, 정서 경험을 측정하고 여러 발달 단계를 포함한 장기 종단 자료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자료는 사회과학 분야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한국에서도 여러 발달 단계의 연구대상을 포함하고 다양한 심리적 속성들을 체계적으로 측정할 대규모 장기 종단 자료가 구축되기를 기대한다.

## REFERENCES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 136-162). Beverly Hills, CA: Sage.
- Chae, J. M. (2017). The effects of shopping value, ease of use, and usefulness on mobile purchase intention. *Science of Emotion & Sensibility, 20*(2), 73-86. DOI: 10.14695/KJSOS.2017.20.2.73
- Cheung, G. W., & Rensvold, R. B. (2002). Evaluating goodness-of-fit indexes for testing measurement invarianc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9*, 233-255. DOI: 10.1207/S15328007SEM0902\_5
- Deci, E. L., & Ryan, R. M. (2000). The “what” and “why” of goal pursuits: Human needs and the self-determination of behavior. *Psychological Inquiry, 11*, 227-268. DOI: 10.1207/S15327965PLI1104\_01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116*, 542-575. DOI: 10.1037/0033-2909.95.3.542
- Dittmar, H., Bond, R., Hurst, M., & Kasser, T. (2014).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ialism and personal well-being: A meta-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7*(5), 879-924. DOI: 10.1037/a0037409
- Grouzet, F. M. E., Kasser, T., Ahuvia, A., Dols, J. M. F., Kim, Y., Lau, S., Ryan, R. M., Saunders, S., Schmuck, P., & Sheldon, K. M. (2005). The structure of goal contents across 15 cultur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9*, 800-816. DOI: 10.1037/0022-3514.89.5.800
- Hong, S. (2000). The criteria for selecting appropriate fit indice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their rationale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1), 161-177.
- Hu, L. T., & Bentler, P. M. (1998). Fit indices in covariance structure modeling: Sensitivity to underparameterized model misspecification. *Psychological Methods, 3*(3), 424-453. DOI: 10.1037/1082-989X.3.4.424
- Jung, Y. J., & Lee, E. J. (2017). Verification of longitudinal changes and predictors of adolescent life goals. *Korea Children's and Youth Panel Congress Book*, 224-246.
- Kasser, T. (2002). Sketches for a self-determination theory of values. In E. L. Deci & R. M. Ryan (Eds.),

- Handbook in self-determination research* (pp. 123-140). NY: University of Rochester Press.
- Kasser, T., Rosenblum, K. L., Sameroff, A. J., Deci, E. L., Niemiec, C. P., Ryan, R. M., Arnadottir, O., Bond, R., Dittmar, H., Dungan, N., & Kawks, S. (2014). Changes in materialism, changes in psychological well-being: Evidence from three longitudinal studies and an intervention experiment. *Motivation and Emotion, 38*(1), 1-22.  
DOI: 10.1007/s11031-013-9371-4
- Kasser, T., & Ryan, R. M. (1993). A dark side of the American dream: Correlates of financial success as a central life aspi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2), 410-422.  
DOI: 10.1037/0022-3514.65.2.410
- Kasser, T., & Ryan, R. M. (1996). Further examining the American dream: Differential correlates of intrinsic and extrinsic goal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2*(3), 280-287.  
DOI: 10.1177/0146167296223006
- Kasser, T., & Sheldon, K. M. (2000). Of wealth and death: Materialism, mortality salience, and consumption behavior. *Psychological Science, 11*(4), 348-351.
- Kim, J. H., Kim, M. K., & Hong, S. H. (2009). *Writing a paper using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Seoul: Communication Books.
- Kim, S. Y., Lim, J. Y., Kim, S. W., Park, S. H., Yoo, S. R., Choi, J. Y., & Lee, G. Y. (2006). *Survey of youth development indicators 1, Verification of measurement indicators in the results*. Seoul: Korea Youth Development Institute.
- Kline, R. B. (2016).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4th ed.). New York: Guilford Press.
- Koo, J., & Suh, E. M. (2015). Why Korean university students are less happy than U.S. counterparts? The role of relative extrinsic value orientation, social support and social comparison.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9*(4), 63-83.
- Locke, E. A. (2002). Setting goals for life and happiness. In C. R. Snyder & S. J. Lopez (Eds.),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pp. 299-312).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Nickerson, C., Schwarz, N., Diener, E., & Kahneman, D. (2003). Zeroing in on the dark side of the American dream: A closer look at the negative consequences of the goal for financial success. *Psychological Science, 14*(6), 531-536.  
DOI: 10.1046/j.0956-7976.2003.psci\_1461.x
- Niemiec, C. P., Ryan, R. M., & Deci, E. (2009). The path taken: Consequences of attaining intrinsic and extrinsic aspirations in post-college lif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3*, 291-306.  
DOI: 10.1016/j.jrp.2008.09.001
- Rohan, M. J. (2000). A rose by any name? The values construc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4*(3), 255-277.  
DOI: 10.1207/S15327957PSPR0403\_4
- Rokeach, M. (1973). *The nature of human values*. New York: Free Press.
- Ryan, R. M. & Deci, E. L. (2002). Overview of self-determination theory: An organismic dialectical perspective. In E. L. Deci & R. M. Ryan (Eds.), *Handbook in self-determination research* (pp. 3-33). Rochester, NY: University of Rochester Press.
- Schwartz, S. H. (1992). Universals in the content and structure of values: Theoretical advances and empirical tests in 20 countries. In M. P. Zanna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24, pp. 1-65). San Diego: Academic Press.  
DOI: 10.1016/S0065-2601(08)60281-6
- Sheldon, K. M. (2005). Positive value change during college: Normative trends and individual difference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9*(2), 209-223.  
DOI: 10.1016/j.jrp.2004.02.002
- Sheldon, K. M., Gunz, A., Nichols, C. P., & Ferguson, Y. (2010). Extrinsic value orientation and affective forecasting: Overestimating the rewards, underestimating the costs. *Journal of Personality, 78*(1), 149-178.  
DOI: 10.1111/j.1467-6494.2009.00612.x
- Sheldon, K. M., & Kasser, T. (2008). Psychological threat and extrinsic goal striving. *Motivation and Emotion, 32*, 37-45. DOI: 10.1007/s11031-008-9081-5
- Solberg, E., Diener, E., & Robinson, M. D. (2004). Why

are materialists less satisfied? In T. Kasser & A. Kanner (Eds.), *Psychology and consumer culture: The struggle for a good life in a materialistic world* (pp. 29-48).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orelli, C. J., & Kaikati, A. M. (2009). Values as predictors of judgments and behaviors: The role of abstract and concrete mindse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6(1), 231-247. DOI: 10.1037/a0013836

U. S. Department of Education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2002). *National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Eighth grade questionnaire*. Chicago: A Social Science Research Center, University of Chicago. DOI: 10.3886/ICPSR09389.v1

원고접수: 2019.10.13

수정접수: 2019.11.17

게재확정: 2019.11.19